

생활화 영역 ‘음악과 직업’의 교육적 탐색과 반영

Educational Exploration and Reflection of the ‘Music and Occupation’ in Daily Life Domain

김 지 현*

Jheehyeon Ki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음악 교과의 ‘생활화’ 영역 내용 요소 중 ‘음악과 직업’의 교육적 의의와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과 직업의 의미,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발전과정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음악 직업의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이를 현장 음악 수업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음악과 직업’ 소주제별 수업 핵심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현장 수업에 반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음악 직업 탐색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음악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음악 교사들에게는 음악 교과 연계 진로/직업 교육을 수용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음악을 심화하여 가르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음악과 직업, 음악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생활화,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meaning of ‘music and occupation’ among the elements of content in the ‘daily life’ domain of the high school general selection Music subject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als with the meaning of work and occupati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and the role of subjects-related career education. Next, it looks into the music career’s trends and prospects. And it analyzes the curriculums and textbooks of music, based on the results, it presents the core contents of ‘music and occupation’ that can be applied to music classes properly, so that they can be used in classes. This study found that students could develop a proper understanding and values of their work and be more interested in music through music and occupation exploration. Therefore it suggests that music teachers be able to accept and teach music class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rough subjects-related career education with music curricula.

Key words: music and occupation, music education, subjects-related career education, daily life domain, music curriculum

* Corresponding author, E-mail: rheen12@hotmail.com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95>

I. 서론

우리가 음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각종 음악 관련 직업인들의 노고이다. 인류가 이어가는 음악 문화는 음악전공의 유무를 넘어서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영향으로 일구어지고 있다. 음악교육자의 경우는 음악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색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외부자의 시각으로도 자기가 속한 직업 세계를 또 다른 자아로 성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은 음악 경험의 현장에서 음악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관심을 주어 관찰하며 음악 관련 직업인과 관련 직종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기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음악 직업 분야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음악이 존재하는 다채로운 시공간들에서는 사람들의 협업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매체들의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음악 효과들이 생성된다. 음악에 기여하는 직업의 활동들과 역할에는 이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과 준비, 도전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음악인들의 자질과 함양 등은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관에도 반성적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음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이전에 진로를 결정하여 오랜 연습을 해야 하고, 음악적 재능을 개발할 인내와 끈기가 끊임없이 요구되며, 음에 대한 청각, 표현력, 창의력과 폭넓은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가로서의 소양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자신만의 음악 철학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pp. 395, 400). 사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쓰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을 미루어야 하고, 우선 성적을 올려야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루어둔다(탁석산, 2016, p. 25).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조금 더 일(work)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간에 엄격한 구분보다는 통합을 강력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경우 포괄적 의미의 직업교육이 일부 교과에 반영되어 있으나 진로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직업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o, 2008, pp. 50, 63-64).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음악 교과는 교과 연계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해 관련 전공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진로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폭넓은 직업의 세계를 안내하며, 음악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각자의 음악적 선호가 분명해지므로 음악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필요한데(Min, 2012, p. 342), 이에 적합한 소재로도 음악과 직업을 활용하여 음악 수업을 전개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문헌 고찰 및 내용 분석을 통한 수업 내용 도출과 적용

가능성의 제안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일과 직업의 의미, 직업 교육과 진로 교육의 발전과정 연구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직업/진로 교육과 음악 교과를 연계할 수 있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활용하여 음악과 직업의 교육적 의미와 의의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음악 직업의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토대로 음악과 직업 수업에 적합한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여 이를 실제로 반영한 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이 각광 받을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미래 직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학습 전략을 제공한다면, 첫째는 과학에 기초를 두고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기술이든지 익힐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도전이 되었든 이겨낼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41). 사실상 청소년들이 들어갈 직업세계는 지속적이고 빠른 변화의 세계로 개인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쌓아가야 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유효하지 않으며 여러 번 직업을 선택하고 바꾸어 가거나 평생 학습을 통해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와 대안적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개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131).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며,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관에 따라 직업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탁석산, 2016, p. 121). 이러한 이유에서도 '음악과 직업'의 교육적 탐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II. 직업·진로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 연구

1. 교육에서 일과 직업의 의미

오늘날 직업은 생계 수단 보다는 사회에 봉사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위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p. 3),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인간다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탁석산, 2016, p. 83). 김충기(2004)는 사전적 의미에서 일의 구분을 *Career*는 *Occupation* 보다는 큰 개념으로 '생애'라고 하였고, *Occupation*이나 *Vocation*은 같은 개념으로 보았으며, *Job*은 직무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김충기, 2004, pp. 25-26). 벤치(Bench, 2007)는 *Vocation*이란 "천직, 즉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딱 맞는 직업을 의미하며 일생의 일”을 뜻하며, 이 기준은 사람의 진정한 내면에서 나오며, 가장 좋아하고 열정을 느끼는 일이라 하였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Bench, 2007, pp. 49-50). 화이트헤드(Whitehead, 1950)는 *Occupation*을 “직업으로 모종의 일을 종사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노동이나 돈벌이가 되는 일에 종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나 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능력, 과학적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시민의식을 발달시키는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한다(Whitehead, 1950, p. 359; 유재봉, 2000, p. 38에서 재인용). 손승남, 이수진, 임배(2018)는 *Career*의 개념을 한 인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일과 관련하여 겪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고, 이 경험은 진학, 취업, 직업 활동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p. 55).

직업은 특정 직업을 좁은 의미로 규정하여 교육과 직업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고 교육의 개념을 직업준비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교육의 의미를 직업세계의 요구와 자유교육¹⁾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적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유재봉, 2000, p. 40). 직업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 여건 범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관점도 있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26).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탁석산, 2016, p. 11). 사실 원하는 직업과 자신의 적성, 그리고 실제로 달성하여 하는 일 사이에는 수많은 불일치가 있어서 직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데, 이렇듯 소망, 적성, 실현 사이의 괴리가 직업 선택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다(탁석산, 2016, pp. 32-33, 37).

2.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발전과정

직업 준비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서구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약 20여전 전이다.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에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강조는 자유교육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유재봉, 2000, p.

1) 자유교육은 지식과 이해추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다(유재봉, 2000: p.35). 피터스(Peters) 자유교육론에서는 교육이 외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며, 지식과 이해와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Peters, 1966: 유재봉, 2000, p. 34에서 재인용). 허스트(Hirst)의 자유교육에서는 학생을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인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지식과 이해의 추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 하였다(Hirst, 1965: 유재봉, 2000, p. 35에서 재인용). 피터스-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내재적 가치의 추구로 합리성 혹은 인지적이며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직업교육과 같이 삶에 필요한 실제적 가치들은 외재적 혹은 수단적 가치라고 하며 소홀히 다루었다(유재봉, 2000, p. 35).

36). 루이스(Lewis, 1998)는 직업교육을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과 '일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은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의 실제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의 직업교육에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에 반해 '일에 대한 직업교육'은 특정 직업에 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직업생활의 중요한 측면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비교해 볼 때 광범위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일에 대한 직업 교육'으로, 이것은 일의 의미와 중요성, 일과 직업 생활에 대한 지식, 직접적인 일의 경험 등을 제공한다(Lewis, 1998, p. 299; So, 2008, p. 55에서 재인용).

인문교육²⁾과 직업교육의 통합 초기에는 직업교육을 인문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나 직업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며 최근 사회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일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지기를 바랐다. 또한 최근 직업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성격은 점차 포괄적인 방향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직업교육의 재개념화는 직업교육의 가치를 인문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여러 직종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전이가 가능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또한 일에 대한 혹은 일과 관련된 학습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수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o, 2008, pp. 49, 52, 63).

'무의미한 기술적 직업주의'³⁾는 비판받지만, 극단적인 직업주의처럼 교육이 직업주의로 대치되거나 직업 훈련이 필수교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또한 교육이 사회적 필요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Cooper, 1986, p. 5; 유재봉, 2000, p. 35에서 재인용).

직업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지만, 직업준비는 학교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준비를 포함하여 일반교육과 더불어 전체 교육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유재봉, 2000, p. 37).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긍정적 노동 윤리-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르지 못하면 수동적이며 의욕 없는 사회가 형성되기에(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32)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은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이전까지는

2) 자유교육은 그리스시대 자유인을 위한 교육을 말하며, 일반교육은 교육의 대중화 맥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인문교육은 자유교육에서의 고전이나 문학 등의 교육내용이 인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진 용어로, 오늘날 보편화된 중등교육의 주된 교육내용은 인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o, 2008, p. 65).

3) "무의미한 기술적 직업주의"에서 '무의미한 기술'을 강조하면 아무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술훈련을 의미하며, '직업주의'에 강조를 두게 되면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Cooper, 1986, p. 5; 유재봉, 2000, p. 35에서 재인용).

직업 교육으로 쓰였으나 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생애교육을 뜻하게 되었고(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pp. 3-4), 직업적성교육을 일컫기도 한다(김충기, 2004, p. 121). 진로 교육은 전 인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기 탐색과 이해의 교육이며 개인의 진로 선택에 필요한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 진로 인식 교육이다(김충기, 1995, p. 20).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적 작용이라 할 수 있다(김충기, 2004, p. 121). 그래서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해 생산적 사회 구성원과 행복한 개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이 진로교육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p. 16).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는 “진로교육이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학교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에 걸친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3). 학교 진로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⁴⁾을 함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 진로변경이나 직업이동과 같은 진로개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자로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만나는 진로개발 과제를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141). 진로개발역량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자질이므로 학교급별로 그 수준과 깊이와 폭을 달리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학교급별로 분절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 및 교육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148).

진로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덧붙여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의 세계를 포함해 모든 인생 진로 문제와 연관해 재구조화하고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p. 6).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 문제를 전체 가치 구조 속에 갈등 없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장래 진로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pp. 36-37). 그러나 진로 문제가 한 개인의 인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인생의 특정 시기, 가령 청소년기나 청년기로 국한시켜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p. 55).

4)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갈 수 있는 역량으로, ①자아 이해와 사회적 기초 역량, ②일과 직업 세계의 종합적·객관적 이해, ③자신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회 및 직업 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역량, ④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으로 구성되며, 태도·지식·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141).

3. 교과연계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다른 교육과정과 달리 직업과 진로 교과목, 그리고 타 교과목과의 연계, 비교과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134).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와 관련하여, 학문이든 고용 분야이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취업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So, 2008, p. 64).

학교의 주된 역할은 학생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청소년이 어엿한 직업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습관은 상당 부분 교실에서 배운다. 교육상담은 학생의 특성을 특정한 직업과 연결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 나갈 유연한 태도,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건전한 가치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창조성과 유연성 그리고 감수성 계발을 위한 고등학교 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주제에서 공통성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p. 82-84, 282, 308).

학교교육에서 일-직업 관련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일-직업 관련 내용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진로 교육 및 교과와 연계된 진로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일-직업에 대한 의미와 긍정적인 가치 형성을 돕고 다양한 직업 설계를 이해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균형 잡힌 역량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Jang et al, 2015, p. 130). 이를 진로개발역량으로 보자면 지식과 기술에 더불어 품성과 태도를 아우르는 기초적이며 포괄적인 능력과 기존 직업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141).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에 연관된 학습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Moon & So, 2016, p. 141). 수많은 직업이 모두 교과와 관련되어 있어서 각 교과를 지도할 때 과목에 따라 흥미와 적성이 있다면 그 분야의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직업 세계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충기, 2004, p. 53).

교과통합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연계하

여 직업 이해 및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학습 동기 부여 등을 돕는다. 또한 직업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해를 토대로 이후의 진로결정 또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며, 교과교사를 진로교육에 동참시켜 진로교육의 확대를 마련하도록 한다(Lim & Jeong, 2010, p. 395; Moon & So, 2016, p. 141). 그리고 지식적 탐구와 더불어 일의 세계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또는 교과가 반영하고 있는 직업 활동을 실제로 하거나 모의 경험을 통해 배우면 직업 소양을 쌓고, 그 직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Park, 2006; Hong, 2001; Lim, 2015, pp. 154-155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과연계/교과통합 진로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의의를 ‘음악과 직업’이라는 주제에 반영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Ⅲ. ‘음악과 직업’ 내용 분석 및 수업에의 적용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음악과 직업’ 내용 분석

진로가 교육계의 화두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이다. 2016년 교육부는 중학교에 자유학기제⁵⁾를 전면 도입하면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에 집중한다. 그리고 2017년 중·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⁶⁾을 독립 교과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와 과학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은 교과 내용과 관련된 ‘일반 선택과목’과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의 ‘진로 선택과목’을 배운다(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pp. 65-67).

고등학생의 진로 과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중학생 시절에 선택했던 잠정적 진로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정하며, 직업이나 직업 현장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증가시키고, 일반적인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진로 의사 결정 과정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기의 가치관, 행동방식, 자기 목표의 동일성 유지 등을 토렷하게 함으로써 자기 준거의 틀을 구축하기 때문이다(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pp. 298-299). 그리고 민경훈(Min, 2012, p. 340)은 “『음악과 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 전반에서 음

5)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한 학기는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p. 65).

6) 『진로와 직업』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는 직업과 인간의 행복, 자기 자신의 이해, 사회변화와 직업세계, 합리적인 의사결정, 직업생활의 영위에 관한 내용들이다(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p. 67).

악이 다양한 형태로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직업을 모색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음악과 관련하여 학생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음악과 진로』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의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선택교육과정 중 일반 과목으로 처음 만들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일반 과목의 『음악과 생활』교과서는 10종 발행된 것에 비해 『음악과 진로』교과서는 3종이 발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고등학교에서 『음악과 진로』이외에 ‘진로’를 명시한 교과로는 체육 교과와 심화 과목으로 『체육과 진로 탐구』와 생활·교과 영역에서 일반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음악』교과에서 생활화 영역의 내용 요소로서 ‘음악과 직업’이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교과가 생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리고 『음악』교과서는 10종 발행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changes of subjects in 2009 and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Republic of Korea

2009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Common Courses		Common Courses	
Music		Music	
Elementary School 3rd to 6th Grades, Middle School 1st to 3rd Grades		Elementary School 3rd to 6th Grades, Middle School 1st to 3rd Grades	
Elective Courses		Elective Courses	
<u>Regular Subjects</u> Music and life, Music and Career	<u>Specialized Subjects</u> Music Theory, Music History and Appreciation, Singing and Listening, Practice in Music Major Studies, Chorus, Orchestra, Performance, Computer and Music, Practice in Liberal Music	<u>General Electives</u> Music	<u>Career-related Electives</u> Music Performance, Music Appreciation & Criticism
High School 1st to 3rd Grades		High School 1st to 3rd Grades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소개된 ‘음악과 직업’ 관련 주요 활동 내용들을 수집하여 ‘주제(수업형태) - 주요 활동 - 음악 직업 분류 영역(페이지)’의 순서로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김지현(2019, p. 78)이 제시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음악과 직업’ 활동 및 영역 비교에서 수정한 것이다.

A 교과서: 음악과 직업(프로젝트 수업) - 모듈별 음악 관련 다양한 직업 탐색, 조사 및 발표 / 음악 직업인 인터뷰 - 연주, 창작, 교육, 경영·감독, 미디어, 기술·제작, 산업, 전문직(78-79쪽)

B 교과서: 음악과 직업 - 음악 관련 여러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생각해 보기 / 이 중 흥미로운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발표 - 연주, 창작, 교육, 연구 및 비평, 문화·예술 행정, 문화 산업(142-143쪽)

C 교과서: 음악과 직업 - 음악 관련 직업을 조사하여 발표 /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여 음악 관련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이것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토론 -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음악을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 음악을 제작·유통하는 사람들, 음악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람들(156-157쪽)

D 교과서: 진로 탐색 - 공연 기획자(153쪽)

E 교과서: 음악 관련 직업 - 음악 관련 직업인의 자질과 역량, 진로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 관심 직업을 택해 인물과의 가상 면담 후 기사 제작 / 미래 음악 문화를 떠올리고 새로운 직업 탐색 등 - 연주, 지휘·작곡, 음악 연구·교육, 음악 산업(132-135쪽)

F 교과서: 음악과 직업 - 음악과 관련된 직업 조사 /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업에 대한 토의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 알아보기 / 음악과 관련된 직업인의 가상 인터뷰 - 음악 작곡가 및 연주가, 음악 교육자, 음악 도구 제작자, 음악 기획자(148쪽)

G 교과서: 음악과 직업 - 음악 관련 직업을 찾고, 관심 있는 직업을 조사하여 발표 / 음악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면담하여 진로 탐색 / 음악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현장을 모듈별로 방문하여 직업 체험하기 / 환경 보호 실천 음악가 소개 / ‘나의 음악적 직업 적성’ 탐색 - 창작 분야, 연주 분야, 제작·기획 분야, 유통 분야, 미디어 분야, 소비자, 악기 분야, 교육 및 기타 분야(110-112쪽)

H 교과서: 음악 관련 직업의 세계 - 음악 관련 직업 탐색 및 조사 / 음악인 인터뷰 내용 조사 및 발표 - 음악을 하는 직업인들, 음악을 만드는 직업인들, 음악 관련 언론 직업인들, 공연을 만드는 직업인들, 음악을 연구·교육하는 직업인들, 그 외 음악 관련 직업인들(154-158쪽)

I 교과서: 음악과 진로, 음악 관련 직업 탐색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것과 연관하여 음악적 관심이 있는 분야 찾기 / 관심 있는 음악 관련 직업 발표 / 음악이 창작·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 찾기 / 음악 분수 연출자, 폴리 아티스트 등 소개 - 창작·연주·교육 분야, 음악 산업 분야, 예술 경영 분야, 음악 제작·미디어 분야(142-145쪽)

J 교과서: 음악과 직업 -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여 발표 /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 - 공연 및 행사 관련, 제작 관련, 유통 및 서비스 관련, 교육 관련, 기타(142-143쪽)

각각의 교과서마다 음악과 직업의 영역별 분류의 명칭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직업 특성들끼리 묶어 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2쪽을 할애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중 기본 활동은 음악과 관련한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과 직업 인과의 가상 인터뷰 등을 들 수 있겠다.

2. 음악 직업 현황

미래학자들은 120세까지 일하며 일생에 8번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예언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변화가 심하게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어 미래 사회 예측이 어려워 직업 예측 또한 난감하다. 전문가들도 직업 전망을 내놓기가 어렵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전망이 비교적 뚜렷하면 전통적인 직업 기초 분야에 자리를 잡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통적인 직업이 각광을 받는다(탁석산, 2016, pp. 64, 66, 70).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노동시장의 추세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디자인해 보는 창의적 진로개발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기존 직업들의 분화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고, 이를 디자인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진로교육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 136).

브랜스컴(Branscome, 2013, p. 11)은 부모와 음악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 관련 진로 결정에 강한 영향력이 있고, 음악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미지의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이 음악적 직업가치관이며 비음악적 직업가치관인가?"

를 질문하며(Branscome, 2013, p. 16), 직업 가치관(work values)이란 음악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보상받는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음악적 활동과 비음악적 활동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Branscome, 2013, p. 17). 또한 음악 직업 경향에 있어 음악 직업 분야에 비음악가들을 위한 많은 직종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브랜스컴(2013)이 제시한 음악 직업 분야의 현재 동향을 살펴보자. 그는 음악 직업의 분류에 대한 쟁점 중 하나로 음악 관련 직업의 많은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전환기에 있다고 한다. 기술, 경제, 음악 동향 및 기타 여러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혁신이 주기적인 경우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다시 나타나 음악가들이 다가올 변화 예측이 쉽지만, 단 한번의 발전적 혁신이 여러 세대의 음악 직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Branscome, 2013, pp. 41-42). 그는 음악 직업 분야를 연주, 종교 음악, 페다고지, 뮤지컬 극장, 음악 산업, 음악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현재의 음악 직업 경향과 음악적 취향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고 일부 음악 직업들이 창출되고 진화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연주 분야의 경우 공연단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후속 공연 축소, 공연 일정 단축이 이어져서 이전에 비해 연주자들이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공연 단체가 더 적어졌다. 종교 음악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 형식에서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의 교회음악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전에는 신학 교육을 받은 교회 음악가를 고용하려 했다면 현재는 음악 학위가 없는 음악가들도 고용한다는 것이다. 뮤지컬 극장에서도 혁신은 진행 중인데, 이전 세대 뮤지컬 공연자들은 노래와 연기, 춤을 출 수 있다면 뛰어났지만 악기도 연주해야 한다거나 무대에서 전투 지휘를 하는 등 많은 기술이 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장 관계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공연의 기대치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 훈련을 모색해야 한다. 음악 산업의 많은 변화들은 눈부신 속도로 일어나는 기술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디지털 오디오는 일자리의 수와 종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넷 기반 마케팅 기법으로 음악사나 음악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음악가 자신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고 CD제작 및 판매에 존재했던 많은 일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⁷⁾ 디지털 사운드 파일은 녹음 제작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 산업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도 대폭 줄어들고,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대중음악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음고 수정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 응용 프로그램이 연주자의 음성을 변경해 빈약한 음악성을 위장하고, 음고를 수정하고 음성이나 악기 등을 다른 방식으

7) CD를 발매하기 위해서는 라벨 디자이너, 마스터 레코딩, 대량으로 CD복사하는 사람들, 최종 제품 포장, 지역 상점 판매원 등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Branscome, 2013, pp. 43-44).

로 조정하여 재능 없는 음악가들이 훨씬 쉽게 대중음악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교육공학 기술⁸⁾이 일반 음악 교실과 리허설 홀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체 인증 프로그램의 대중화로 학교 지구에서 음악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서 전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했던 분야의 추가적 고용경쟁이 생겼다. 또한 음악 수업에서 새로운 평가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수정하고 대학 음악 교사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공립학교에서 디지털 키보드 랩실을 인수하거나,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현악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개인 교습을 하는 음악가들이 공립학교 음악 교실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음악 교사 인증을 위한 추가 과정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Branscome, 2013, pp. 42-45).

『2019 한국직업전망』(Korea Occupational Outlook)에서는 음악 관련 직업인으로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음악가', '대중가수 및 성악가' 및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를 명기하였다. 이들의 향후 10년간의 취업자 수에 대한 전망으로는 '국악 및 전통예능인'과 '음악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대중가수 및 성악가'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의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⁹⁾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국악화하거나 재창작이 이루어지고 음악, 무용, 연극 등이 결합된 혼합 장르가 늘어나면서 국악 공연도 증감을 반복하고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활성화로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의 진출 경로도 다양해졌다. 음악인들의 활동무대가 공연 중심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바뀌어 온라인 공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 진 점,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pp. 396-397, 401). 대중가요에 대한 인기로 음악 산업의 발전과 신입 가수의 등장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하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취업수의 증가로 보았다. 그러나 성악 등의 학과는 뮤지컬이나 영화음악 등으로 대체되어 이 일자리 수는 어렵게 나타난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9, p. 406). 음악가들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 및 예술인고용보험 등의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 되어 고용은 이어지겠지만 국공립 단체와 같이 안정된 일자리는 제한이 있어 입직을 위한 경쟁은 예상될 것이라고 보았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pp. 397-398, 402, 407).

8) 스마트 보드, 아이클릭커, 가상 교육 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등(Branscome, 2013, p. 44)

9) 현 상태 유지 -1% 초과 +1% 미만, 다소 증가 1% 이상 2% 이하, 다소 감소 -2% 이상 -1% 이하

3. ‘음악과 직업’ 수업의 적용 가능성 탐색

미래의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직업 개념과 연결 짓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100).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음악과 직업’ 활동 및 영역 비교에서 제시한 음악 교과서 내용 중 음악과 직업 관련 부분의 분석과 앞서 제시한 현재 음악 현황 및 전망, 공개 미디어의 음악 직업인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음악과 직업’ 소주제별 수업 핵심 내용”¹⁰⁾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구성한 기본 바탕은 다채로운 음악 장르와 다양한 음악 양식과 형태 등을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직업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주제들에서 파생되는 “표현” 활동을 하며 미적 요소에 대한 탐색도 가능하도록 소주제를 선정하고 각기 흠어 놓았다. 그리고 삶에서 밀접하게 발견해 볼 수 있는 음악의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생활 속 음악에 대한 음미와 열린 수용, 관심과 즐거움 등도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교과가 반영할 수 있는 ‘음악과 수업’ 소주제별 수업 내용은 음악 관련 직업 활동을 모의적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음악의 본질을 유지한 채 보다 더 확장된 세계 속으로 학생 자신의 음악적 안목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이다. ‘음악과 직업’ 소주제별 수업 핵심 내용을 ‘소주제 - 음악 수업 핵심 내용 - 직업군별/음악활동별/장르별 분류’의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게임 및 광고 음악 제작자: 게임중독법 반대를 위해 플래시몹 형태로 모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광장에서 공연하는 유명한 게임음악 메들리를 감상한다. 게임 음악 또는 광고 음악의 특징과 제작 과정,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음악 또는 광고음악 등에 대해 발표해 보고, 이에 관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직업인들을 조사해 본다. - 음악 산업, 창작 및 연주, 음악과 사회

나. 악기 제작자: ‘나무 건조하기-겉목치기-울림통 만들기-울림통 붙이기-좌단 장식하기-봉미 만들기-인두질하기-괘 붙이기-줄걸기-완성’의 거문고 제작 과정에서 악기장의 고집스러움과 장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거문고 산조의 연주 장면도 함께 감상한다. - 제작·유통, 감상, 국악기

다. 영화음악 감독: 영화음악 감독의 영화음악들을 추적해서 영상과 함께 발표해본다. 영화음악만 들어도 떠오르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다. 그리고 영화음악 감독들의 인터뷰 기사들을 참고하여 가상으로 그들의 작업 과정을 구성해 볼

10) 김지현, 2019, pp. 79-81에서 수정

수 있다. 영상에 알맞게 정확한 분량의 음악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음악적 상상력과 장소와 인물 등의 이미지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 - 미디어, 창작, 기획

라. 지휘자: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연습 장면을 시청하며 지휘자의 역할과 행동 등을 분석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의도한다.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풍부한 음악가이다. 작품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며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총체적 해석을 리허설을 통해 단원들에게 설득하고, 이들과 음악적으로 무언의 교감을 이루어 우리 오케스트라만의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활동 중인 지휘자들의 자전적 삶의 이야기를 조사하여 지휘자가 된 과정을 역추적해보고, 명지휘 장면의 일부를 함께 감상해본다. - 기악, 감상

마. 음악 점역사: 음악점역기능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서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음악을 여섯 개의 점으로 구성된 점자라는 형태로 하나하나 구현을 하고 번역을 하여 악보를 점자악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음악적 지식과 배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음악 도서 출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음악점역 작업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악보를 음표와 기호 및 부호까지 점역사가 작업을 해야 한다. 악보 분석 및 점역 후에는 교정사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확인 후 최종 검수 및 출판이 이루어지는데, 점자 악보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직접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해야 하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음악 관련 직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봉사와 자원 활동들도 함께 나누어볼 수 있다. - 악보출판, 음악과 사회

바. 작곡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그 외 디지털 음악 관련 기기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작곡하고 사운드를 새롭게 만들며 프로듀싱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알아본다. 기본적인 작곡법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조사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비트 만들기 또는 머니 코드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를 직접 해 볼 수 있다. 음악을 만들 때 작곡가들이 그려 놓은 음악에 대한 큰 그림이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실제 작품이 되는지 그들의 창조적 작업 과정과 결과물,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 형태로 그려볼 수 있다.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음악 산업의 현재와 전망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 음악 산업, 창작

사. 음악 치료사: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음악치료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음악 관련 학과나 음악 치료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음악을 잘 다룰수록 좋고, 음악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

자에게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각각 내담자에게 알맞은 음악 치료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리치료, 전문직

아. 음악대학탐방: 현재 대한민국 음악대학에서 개설된 음악 관련 전공 학과에 대해 알아본 후, 음악대학이나 실용음악과의 홍보 영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음악전공생의 하루를 탐방해본다. 2019년 대학 학교별 전공 학부(과) 현황에서 음악 관련 전공 학과들의 명칭을 나열하면 이와 같다. 음악학부(기악, 성악, 작곡), 음악과, 음악학과, 한국음악과, 국악과, 국악학과, 전통예술학부, 음악교육과, 초등음악교육과(심화과정), 실용음악과, 실용음악학과, 생활음악학부, 음악목회학전공, 교회실용음악전공, 공연음악전공, 미디어음악과, 음악예술경영학과, 음악콘텐츠학과, 포스터모던음악학과 등 - 음악전공생, 교육

자. 음악 엔지니어: 현장 녹음에 필요한 작업과정과 장비들에 대해 조사해본다. 음향 엔지니어와 레코딩 엔지니어는 공기 중에 사라지는 소리를 잡아내어 매체에 담아 기록하는 공간을 녹음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방송국과 라이브 콘서트 등에서 좋은 음향을 만들기 위해 사운드를 이퀄라이징한다. 스튜디오 녹음, 야외 녹음, 현장 라이브 녹음 등이 있으며 음향과, 음향제작과, 음향미디어전공 또는 전자공학계열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미디어, 제작·유통

차. 국악인: 국악인들은 왜 국악을 전공하고 연주를 하며 우리나라 음악을 알리는지에 대해 자국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그리고 젊은 판소리 명창들의 국악을 넘어선 다른 음악들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공연 영상을 감상하고 토의해본다. 또한 판소리 한 대목을 노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덧붙일 수 있다. - 감상, 판소리 가창

카. 음악 평론가: 모둠별로 음악을 비평한 기사들을 선별하고 음악 평론에 대한 의견을 전체 토의에 붙여본다. 그리고 음악평론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음악평론가는 음악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고 있는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직업이다. 음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듣고 흘러보낼 수 있는 음악을 붙잡아 분명한 근거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 미디어, 음악과 언론

타. 공연 기획자: 국내의 음악 페스티벌을 찾아보고 공연기획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페스티벌의 특징과 프로그램을 분석해본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가평의 늪지대를 개간하는 개척정신으로 시작하여 국제페스티벌로 자리 잡는데, 음악에 전문적 식견과 공연에 열린 시각을 가진 총감독의 작은 바람으로 시작이 되었다. 완전한 협업을 통한 공연의 모든 진행 과정과 즉흥성 및 장르별 융복합이 다채로운 음악 축제를 경험하게 하는 의미를 찾아본다. - 경영, 공연, 재즈

파. 음악 교육자: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짐작해보고 음악 교육자가 되는 과정을 그려본다. 음악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애정이 있고 교사로서의 자질, 예술가로서의 음악적 감각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음악 실기도 병행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 및 연주, 논문 발표 등의 경력을 쌓아 대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 교육전문직

하. 클래식 연주자: 클래식 연주자들의 자서전을 조사해서 음악 도서 목록을 만들어본다. 음악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대기를 무지개 생애 역할 비교나 생애 흐름 스토리 보드 등으로 작성해보고 발표한다. 국내와 국외에서 교육받은 음악가들을 나누어 생애 주기 및 연주에 있어서 특징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고전 음악에 대한 소감과 편견 등을 이야기 해 볼 수도 있겠다. - 음악도서, 고전음악

수업의 형태는 단위 학교 실정과 평가 계획, 음악실 환경 등을 고려해 개인별/모둠별 발표, 프로젝트, 설명과 분석을 위한 시연, 비평, 토의/토론 등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음악과 직업' 활동 및 영역 비교와 '음악과 직업' 소주제별 수업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음악적 현상이나 가치에 대한 비판적이며 분석적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며 음악 관련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비판적이며 분석적 사고와 더불어 폭넓은 안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Min, 2012, pp. 339, 342).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 제시된 "성취기준해설 [12음03-02]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여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 기대와 긍지를 갖도록 한다."에 따라서 '음악과 직업' 소주제별 수업 핵심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이를 다루어 볼 수 있는 질문과 학생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질문 "가깝거나 먼 미래의 '소리 또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직업'을 상상해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음악적 상상의 세계이다.¹¹⁾

학생 A 음악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지식으로는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사람의 뇌를 분석하여 그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찾아 들려주는 시스템이 발명될 것 같다. 음악으로 밖에 느끼지 못하는 희열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11) 2019학년도 Y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음악 수업 '음악과 직업' 학생 저널 중에서

학생 B 소리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잔잔하고 작은 소리 보다 빠르고 큰 소리가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할 것이고 태양수력보다 훨씬 효율적인 친환경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가능 할 것 같지만 먼 미래는 가능할 것이다.

학생 C 미래에는 무소음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요즘 헤드폰들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외부 소음의 역주파수를 흘려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시키는 물질이 있다고 들었다. 이처럼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의 휴식을 위해 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 무소음이나 저소음으로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이 생길 것 같다.

두 번째 질문 “현재 나의 진로 희망은 _____(이)다. 나의 직업과 음악을 연결시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들이다.¹²⁾

학생 D “핵 물리학” 핵이 융합하거나 분리될 때 어떠한 파동을 내뿜는지를 알아 규칙성을 찾는다. 그 규칙성을 간단한 리듬으로 만들어 어떤 핵이 어떤 리듬을 갖는지 리듬에 맞는 원자핵을 알 수 있게 한다.

학생 E “컴퓨터 생명공학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생명공학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짜서 더 빠른 발전(연구)을 할 수 있게 함. 귀가 어두우시거나 청각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구강 구조와 성대 모양을 파악하여 모양에 따른 소리를 출력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고 싶다.

학생 F “철학과 진학” 노래 가사에 담긴 철학적인 것들을 해석해 줌. 철학적 가르침이 담긴 노래를 만들(단편적인 예시로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5부에서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즈와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의 랩 배틀이 나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음악에 대해 깊이 반성해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며 언어로 음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볼 수 있다. 음악을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에서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감성은 물론 음악적 사고력과 상상력, 통찰력을 키워볼 수 있지 않은가.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가 형성이

12) 2018학년도 Y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음악과 진로 수업 학생 저널 중에서

되고 음악의 내면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음악에 대한 향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음악과 직업'의 경우는 사회와의 연결성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의 음악들에 닿아 보다 넓은 문화와 사회로 열릴 수 있는 문지기 역할도 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한 음악과 직업 수업 내용 도출과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제안하였다. 청소년은 어떤 꿈이 실현 가능한지 어떤 기술이 유용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며, 이를 학교에 위임했지만 학교가 청소년을 위해 현실적인 직업 교육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23). 학교나 가정에서 적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은 학과 공부에 몰두하느라 다양한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주위의 부모님이나 교사도 모두 사회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탁석산, 2016, pp. 8-9). 청소년을 건강한 직업인으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의 직업 세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과도기에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여줄 지역 사회의 여건이 중요하며, 원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흥미를 유도해주는 어른과 만날 기회를 없거나 배움을 자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접하지 못하면 직업에 대한 자기 주관을 발전시키기에 불리하다. 또한 6학년생은 주로 가정 안에서 직업 세계를 접하지만 8학년과 10학년이 되면 직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원을 학교가 제공한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p. 82-84, 95).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개발하고 확립하며,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진로교육은 일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직업에 대한 편견을 탈피하는 교육이다(김충기, 1995, p. 22). 그래서 진로교육은 인생 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과 소질,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p. 4).

진로교육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진로 선택에서 고려하는 적성이나 지능은 인지적 측면으로 일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개인의 의미와 보람, 행복감, 즐거움과 같은 정의적 요인이 있다(김충기, 1995, pp. 21-22). 이런 면에서 음악 교과 연계 직업/진로 수업은 이 교육에 최적화된 알맞은 수업이 될 수 있다.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 등 인간의 정의적인

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음악이라는 예술분야에 음악 산업으로 형성되었다. 음악 세계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1950년 이래 급성장한 음반과 방송 산업의 영향이다. 점점 더 음악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영자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음악 뿐만 아니라 경영, 회계, 마케팅, 상법, 저작권 등과 같이 젊은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들을 포함해 최근에는 녹음기술이나 오디오, 비디오 제작 분야에서도 강좌가 마련되고 학위가 수여되기도 한다. 이 분야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체계¹³⁾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병행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질¹⁴⁾을 평가해보는 일이 중요하다(Baskerville, 1998, pp. 13, 33-34, 483-487). 일반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교사들도 음악 분야를 진로로 정하고 전공 예정인 고등학생들을 만난다. 본고에서 제시한 ‘음악과 직업’ 수업이 음악 전공 학생이나 비전공 학생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음악 분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굳이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진학 관련 상담을 할 경우는 음악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바스커빌(1998)이 앞서 제시한 음악 관련 기량과 예술에 형성된 가치체계 등을 짚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흐름을 알고 보다 넓은 관점으로 수용하여 현재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고의 학생 D, E, F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음악을 연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친밀감 획득은 물론 자신의 진로장벽을 조금씩이라도 낮추어 보며 진로효능감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음악교사의 가능한 역할로 본다.

스와닉과 틸만(Swanwick & Tillman, 1986)은 메타인지가 15세 이상의 10대 중반 시기에 주요 사고 과정으로 일깨워지며, 음악에 대해 반응할 때 사고와 느낌의 과정을 스스로 자각하는 특별한 감각으로 보았다. 그리고 강한 가치관이 이 시기에 자리를 잡으며, 관습적인 행동들을 논리적인 행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의식이 생성된다. 일반적 합의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개개인의 특별한 욕구와 특정한 장르의 음악들이 일치하기 시작하고, 17세 때의 음반 수집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음악적 선호를 가지는 13세 이전보다 더 다양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 음

13) 예술적인 자유, 예술적인 성취, 지속적인 연주여행, 예술적인 발전 등(Baskerville, 1998, pp. 483-487)

14) 창조적인 능력, 연주기량, 음악적 지식, 음악적 리더십, 음악 관련 제반 분야에 대한 이해, 음악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음악적 성장 가능성 등(Baskerville, 1998, pp. 483-487)

악의 가치를 강하게 느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정 또는 관점으로 음악 분야가 확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한다(Swanwick & Tillman, 1986, pp. 330-331). 고등학생 시기의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음악과 직업'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언어 표현을 주력으로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이돌, 즉 요란한 스타들에게 끌리는 것은 문화가 이들이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기 때문인데 (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18, p. 37), 여기에 대하여 음악교사 및 음악교육자들이 어떤 정답과 훈계가 아닌 음악 문화를 교육적으로 포괄하면서도 학생들을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아이들의 음악 세계에 접속해 볼 수 있고 그들은 학교 음악실에 마음의 문을 열어 음악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여 상호작용하는 음악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음악과 교육과정 생활화 영역의 내용요소 '음악과 직업'에 대한 탐색 연구는 음악 교사와 학생들에게 음악 직업 세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과 중요성을 제공하여 음악인과 직업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탐구 활동으로 이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바이다.

References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_____ (2004).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선택**. 서울: 피와이메이트.
- 유재봉 (2000). 직업교육과 자유교육의 통합: 철학적 검토. **교육과정평가연구**, 3(1), 33-45.
- 탁석산 (2016). (직업에 관한 고찰 01)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파주: 창비.
- Baskerville, D., & Baskerville, T. (2018). *Music business handbook and career guide*. Sage Publications.
- Bench, M. (2003). *Career coaching: An insider's guide*. Davies-Black Publishing.
- Bergee, M. J. (1992). Certain attitudes toward occupational status held by music education majo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2), 104-113.

- Branscome, E. (2013). *Music career advising: A guide for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 Csikszentmihalyi, M. & Schneider, B. (2018).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Trans. by Lee, H. J. Paju: Haenaem.
- Freer, P. K. (2011). The performance-pedagogy paradox in choral music teaching.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 19(2), 164-178.
- Hirst, P. H. (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 D. Archambault (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ong, W. P. (2001). Research trends and new perspectives in vocational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6(1), 131-150.
- Hwang, M. H., Kim, J. H., Ryu, J. Y., & Heppner, M. J. (2006). The circumscription process of career aspir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7(2), 133-143.
- Hyun, K. S. (2015). Analysis of Korean music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national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283-303.
- Jang, M. H., Hwang, S. S., Kim, H. S., Oh, S. Y., Park, S. M., & Han, S. R. (2015). An analytic study of occupation related content in high school textbook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4(1), 127-148.
- Kassner, K. (2009). Reflections on career development and eclecticism in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96(1), 62-66.
- Kim, J. H. (2019). *Music class for music occupational exploration*.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the 50th Summer Conference, 75-82.
- Kim, Y. H. (2018). The development of an interdisciplinary music and art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61-86.
- Kwon, S. M. (2012). The necessity and the developmental suggestion for developing convergent education contents focusing on the ar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67-100.
- Lewis, T. (1998). Vocational education as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28(3), 283-309.

- Lim, M. O., & Jeong, Y. O. (2010).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subjects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2), 379-398.
- Lim, Y. N.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general high schools through analyzing the senior cycle LCVF curriculum in Ireland.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139-166.
- Min, K. H. (2012). Discussion about music industry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regarding 'Music and Career', an elective subject for high schoo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339-353.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Music curriculum*. No. 2011-361. [Supplementary 12]
- _____ (2012). *School career education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 Ministry of Education (2013).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3-7.
- _____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5. [Supplementary 12]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2019 Korean occupational outlook*. Retrieved October, 06, 2019, from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2108/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25&pubIdx=5212&onlyList=N>.
- Moon, J., & So, K. H. (2016). An analysis of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excellent schools in curriculu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4), 135-155.
- Park, C. H. (2006). A philosophical study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vocation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towards a society of lifelong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 49-69.
- Peters, R. S. (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Rickels, D. A., Brewer, W. D., Councill, K. H., Fredrickson, W. E., Hairston,

- M., Perry, D. L., Porter, A. M., & Schmidt, M. (2013). Career influences of music education audition candidat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1(1), 115-134.
- Rojewski, J. W., Lee, I. H., & Hill, R. B. (2014). Participation patterns of Korean adolescents in school-based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5(3), 473-482.
- Schmidt, L. (1977).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63, 40-41.
- So, K. H. (2008). Unific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learning within high school education: It's necessity and possibil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3), 47-68.
- Swanwick, K. & Tillman, J. (1986). The sequence of musical development: A study of children's compositio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 305-339.
-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999).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_____ (2011).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Whitehead, A. N. (1950 2nd ed. 1932, orig.),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London: William & Norgate Ltd.

Music Textbooks

- Cho, D. H., Kim, Y. M. Yun, A. Y. Choi, E. A., Lee, J. D., Lee, H. J. & Yeo, S. H.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Darakwon.
- Choi, E. S. Shin. Y. G., Kang, S. Y., Kim, M. S., Kon, H. G., Ahn, I. K. & Yang, B. R.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Chunjae Textbook.
- Hwang, B. S., Jung, G. S., Kang, S. Y., Park, K. J., Kim, H. J., Kwak, E. S. & Um, S. Y.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Jihaksa.
- Jang, G. B., Lim, E. S., Park, K. H., Kim, J. K., Hong, J. K., Cho, S. K., Song, M. K., Lee, S. U. & Kim, K. T.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MiraeN.
- Ju, D. C., Sung, E. J., Lee, B. H. & Lee, D. H.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Visang.

Ju, G. S., Shin, H. Y., Lee, S. E. & Kim, K. Y.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PYBook.

Kang, M. S., Kim, H. S., Choi, J., Han, T. D., Kim, S. H., Yang, E. J., Kim, I. Y., Yum, D. S., & Jo, A. Y.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YBM.

Kim, G. O., Park, J. H., Kim, H. K., Park, S. J., Lee, N. R. & Jeon, M. J. (2015). High School Music. Paju: Achimnara.

Kim, Y. H., Hyun, K. S., Chae, E. Y., Kim, J. H. & Lee, S. K.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Kumsung.

Yang, J. M., Shin, H. N., Dok, G. H., Kim, H. S., Jang, B. Y., Hwang, E. J., Song, M. A., Kim, S. C. & Jeon, M. C. (2015). High School Music. Seoul: Music & Life.

The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http://ncic.kice.re.kr/english.index.do>

Received: 31 August 2019, Reviewed(Revised): 2 October(7 October) 2019

Accepted: 24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Jheehyeon, Kim: E-mail: rheen12@hotmail.com

Music Teacher, Kyungdong High School, 49, Bomun-ro 29-gil, Seongbuk-gu, Seoul, Korea

